

독도에 佛心 심는다

태고종 5월 8일 독도서 국민화합기원법회 · 위령재 봉행

태고종이 독도지킴이에 적극 나선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5월 8일 오전 10시 역사상 최초로 독도에 직접 입도해 3시간 동안 독도지킴이 국민화합기원법회 및 전몰군경위령대회를 봉행한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아베 총리 등 일본정부 관계자들의 역사와 진실 왜곡을 규탄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영령들을 천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고종이 3년 전부터 추진해온 이 행사는 일본과의 국가적 마찰을 우

려한 정부의 불허로 인해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올해들어 문화관광부가 유례없이 허가를 했고, 문화재청도 적극 협조해줘 행사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1부 행사는 부원장 보경 스님의 상축, 부원사 주지 환우 스님의 봉행사,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법어, 정운열 울릉군수와 편선재 울릉경찰서장의 기원사,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2부 행사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의 주관으로 전통군경 합동위령영상대제가 열린다.

또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수비대에 금일봉과 위문품도 전달한다. 사회부장 운봉 스님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며 "독도의 주권을 굳건히 지키는데 불교가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도 "이번 법회를 독도에서 봉행함으로써 불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우리 땅 독도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전 국민이 독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서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장애우 300명 “지관 스님께 5계 받아요”

조계사 5월 19일 수계법회 마련...장기자랑 등 공연도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고타마 싯타르타(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이름)가 룸비니 동산의 보리수 아래에서 태어나 일곱 발걸음을 걸은 뒤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외친 첫 사자후.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다는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

수계법회는 5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며 장애우 300명과 자원봉사자 300명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계사를 ‘자정’해 행사가 종단차원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수계법회 후 장애인 장기자랑 및 초청공연과 서원 등 달기도 진행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종단 차원에서 대규모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법정 다름 막 내렸다” 범어사 관련소송 마무리

부산 범어사 주지명당과 관련해 현 주지 대성 스님과 전 주지후보자 홍선 스님과의 법정 다툼이 막을 내렸다. 범어사측은 4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간 끌어온 오랜 법정 공방이 지난 4월 12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조계종과 범어사 현 집행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정 다툼은 2003년 12월 20일 당시 범어사 주지 성오 스님 임기만료를 앞두고 범어사 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3일 산중총회 소집공고를 냈지만, 문도총회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했던 홍선 스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공고 명령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범어사는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대성 스님이 현 주지로 임명돼 집행부를 구성했다.

홍천사 현지답사하기로

조계종 재정분과위 결의 서울 홍천사 토지 불법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집행부와 중앙총회가 공동으로 답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총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황희)는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 집행부, 중앙총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재정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현지를 답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 재정분과위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재무부와 합동으로 부산 선암사 사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 협력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지관 스님께 친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읽고 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친서를 보냈다. 두랏 바키세브 카자흐스탄 주한 대사는 4월 18일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2006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2차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쳐 대통령이 높게 평가했으며, 대회에 참여한 조계종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또 “2009년 제3차 대회를 개최해 카자흐스탄의 여러 민족과 종교간 화해와 협력을 이

의도도 있다. 지난 2차 대회에는 마하티르 前 말레이시아 수상 등 정상 3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에서는 사회부장 지원 스님을 단장으로 3명이 참석했다.

새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씨 내정

새 문화관광부 장관에 김종민(58·사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4월 19일 내정됐다.

김종민 장관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시 1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되면서 문화 및 체육 부문과 인연을 맺었다. 1994년과 1995년 대통령 행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냈다. 1999년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장, 2001년 경기관광공사 설립준비위원장 등을 맡았다.



남동우 기자

어린이 포교 ‘방향잡기’가 중요

조계종 포교원 26일 포교총책연찬회 개최

2006년 10월 조계종 최초로 어린이·청소년팀이 발족했다. 종단적으로 보면 올해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펼치는 원년이다. 하지만 어린이포교에 대한 목표나 비전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과 포교연구실 어린이포교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포교총책연찬회를 개최한다. 4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연찬회에서 포교원 어린이의 일반적 특징과 그에 따른 포교방향을 정립한다. 연찬회는 ‘어린이 불자상 정립과

그 포교 방향성’을 주제로 이수경 교수(동국대 불교아동학과)가 ‘어린이의 일반적 특성과 그 불교적 이해’로 어린이 시기에 형성되는 신체적, 문화적, 정신적 소양의 특성과 그것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한다. 대호 스님(제주도 원명선원 원명유지원장)도 ‘어린이 불자상과 그 포교 방향’으로 불교에서 바라보는 어린이상을 정립하고 포교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 토론자로는 최미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이, 두 번째 발제 토론자로는 김형숙 경기교육청 장학사가 나선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29일 ‘명사법계전행’ 등

조계종 제29차 원로회의(의장 종산)가 4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로회의 의원 선출의 건, 명사법계 특별전행 심의의 건, 종무보고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관음증, 28일 호국연무사서

관음증(총무원장 홍파)이 4월 28일 오후 2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관음증 종정 즉산 스님이 직접 계사로 참여하며,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이 3사 7종으로 수계식을 봉행한다. 관음증은 훈련병들에게 수계종과 수계 단주를 지급해 훈련기간이나 생활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 법회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우리 불교계에서 젊은이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관음증에서 훈련병을 상대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한국불교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인타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마루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8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제 병풍도 고급 百福圖 명품으로 확 바꾸자!

가정에 하나쯤은 보배로 정통병풍이 있어야 名家집안 소리를 듣습니다.

福字 하나만 받아도 복스럽다는 행운의 복자 百福圖는 福福子를 中國 銀(은)나라 漢字 殷墟文字(언어문자) 원형 甲骨文(갑골문)체로 100개의 복자를 각기 다른 형태로 글자 하나 하나에 혼을 실어 금분으로 써서 열폭의 병풍에 담아 예술로 형상화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작입니다.

2007 丁亥年 돼지해에 삼불사 금강불교문화 연구원장 서예작가 廷潭스님께서 불자들에게 富貴 번영과 幸福을 祈願하는 마음으로 정성들여 만들어서 50작품 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흑지 위에 금분으로 쓰여진 百福字는 보는 사람과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며 그 신비함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첫 작품은 으뜸의 소장가치를 지니는 바, 첫번째 주문하시는 분께는 행운의 증1호로 바로 보급됩니다.

집안에 백복도 병풍을 소장해 두신다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고 千壽(천수)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丁亥年 돼지해에 소중한 분들에게 행운의 백복도 병풍으로 최고의 값진 선물을 안겨 드려주세요.

부귀, 행복, 희망, 기쁨, 장수 5배의 소장가치가 있습니다.

廷潭스님 서예작가 약력
 · 2002년 대한민국서화대전(예술의 전당) 최우수상(반야심경)
 · 한중수교 12주년 중국신동성 박물관 전시 대상 (금강경)
 · 2003년 출판 백인전 반야심경, 금강경, 한시, 백복도 전 출품 북경공예미술대학 초대 한중서화 교류전 대상
 · 2002년 미국인민 100주년 기념 하와이 주립대학 초청서예전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 아트 갤러리 대상

특별 보급가 : 3,900,000원 → 1,900,000원
 10폭 병풍 (폭 넓이 : 44cm, 한폭세로 높이 : 5자 2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2004-8215
 입금계좌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 : (주)에이치비엠씨